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

고전 15:3~11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안고 가야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에 지성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 신앙이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로 인해 절망하여 죽어 가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면 설득력이 강합니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천년 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사”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일 점, 일 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두 제자들에게 전해 모두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목격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착

해 보니 정말 돌은 굴러졌고 주님의 시신은 오간 데 없이 수의만 곱게 개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고 못 자국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증언했지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자국이 선명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애를 안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기쁨과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4복음서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일곱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간 같지 않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곧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지성이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 ~ 20).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 ~ 8).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허다한 무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에서 받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으며 로마를 바꿨고 세상을 바꿨던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세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명령을 품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조직했던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실 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 찬희, 비전, 믿음을 가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부활의 비전, 희망, 믿음, 기쁨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또 한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3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회심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던 그 날 밤이었습니다. 당시에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밤에 찾아오신 주님은 흰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두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가 상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2천년 동안 기다려 왔다’고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3년 후, 저는 폐결핵에 걸려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쯤 제가 처음 만났던 그분과 똑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게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며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온누리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2천년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두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후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온누리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급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남자만 5천명이 모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에서 3만의 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말씀부터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고, 성도들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정점에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교회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자진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사령탑은 안디옥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먼저 예루살렘에 대형 교회가 있었고, 다음으로 안디옥에 중·소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목회 중심이었고, 안디옥교회는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저는 요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는 목회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재와 서빙고에 큰 공간을 주셔서 주일에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찾아와 예배합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잘 훈련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이나 다른 자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종 사역과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는 막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교회에 3천, 5천, 3만 명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어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편하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해 성도들을 각지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오래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아픈 이유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네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에 한계를 주시는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강상 교회를 많이 비우는 데도 이상하게 온누리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핍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빨리 흩어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7년 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에서 떠나라고 말했지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천국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이 점이 저의 마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비전교회 세워야

여기서 우리가 큰 교회로 만족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누리면 될 것을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를 정탐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란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리더십들이 스스로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부흥을 나눌 때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개 비전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30개 비전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선교지에 2천 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가 활동을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사라지더라도 교회는 계속됩니다.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아 문제이지만 선교지에는 너무 없어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심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성도는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마지막 목회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완성된 교회에서 누리며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하나씩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며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30개 비전 교회를 위해 헌금하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명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과 피와 열정과 헌금 등 모든 것들이 드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을 통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 아침을 맞아

주님의 축복, 감격, 기쁨, 희망,

부활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 좌절, 고통, 절망이 떠나고

부활의 환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